# 광주시 조직개편안 시의회서 딴지…'윤장현號' 첫 발도 못뗐다

## 두패로 갈린 시의회, 상임위 통과안 본회의에서 뒤집어

## 정기인사도 8월 이후 연기…내년 예산안 확보 등 업무 마비

윤장현 광주시장의 '시민 중심' 시정철학이 담긴 민선 6기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광주 시정이 대혼란에 휩싸이는 등 당분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선시대 이후 첫 조직개편안이 의회 반대로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윤 시장과 이번 조직 개편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조영표 시의회 의장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광주시의 정기인사도 8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승진인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평)을 재반영해야 하는데다 직원들도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인사 지체에 따른 행정공백도 우려된다.

이번 시의회의 조직개편안 부결을 놓고 시청 안팎에서는 윤 시장의 정치·행정력 및 시청 정무 시스템 부재, 조영표 의장의 무능한 리더십 등으로 발생한 최악의 결과물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22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10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찬성 9표, 반대 7표, 기권 4표로 부결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2표로 조직개편안을 가결했으며,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부결로 그동안 시 정기인사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을 보여왔던 조영표 의장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시의회 행자위가 표결 끝에 조직개편안을 가결하자 이날 저녁 8시30분에 심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 의결해주려고 했지만, 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산회했다.

전체 의원 22명 중 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조 의장을 밀어준 의원 12명(조 의장 포함)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안 처리과정에서 윤 시장의 정치력 및 정무기능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조직개편안 통과 후 31일 하반기 인사(승진)를 단행할 예정이었던 광주시는 내달 중순 이후로 인사일정을 연기하는 등 극심한 행정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2015년 정부 예산안 확보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연이은 인사지체로 민선 6기 행정동력마저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시청 직원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5급 승진 대상자인 A씨는 "근무평정(근평)을 다시 하면 기존 승진 순위가 변동하게 돼 승진 대상자들은 여름휴가는 커녕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버텨야 한다.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누가 일을 하겠느냐"면서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런 아마추어 같은 행정은 처음 본다. 승진 대상자간에 새로운 근평을 얻기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도의회사무처장에 정병재

## 전남도, 실국장·부단체장 등 고위직 39명 인사

정병재 주동식 정순주 천제영 위광환

전남도는 29일 정병재 해양수산국장을 지방이사관(2급)인 의회사무처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실국장과 부단체장 등 고위직 39명에 대한 인사를 8월 1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22면〉

이낙연 전남지사 체제인 민선 6기 출범과 조직개편에 따른 첫 후속인사다.

신설한 일자리정책실장에는 주동식 의회사무처장을 발령했다.

국장급으로는 안전행정국장에 정순주 경제과학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에는 송영종 순천부시장이 자리를 옮겼다.

부단체장으로는 이승옥 관광문화체육국장과 명창환 안전행정국장, 임영주 농축산식품국장이 각각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부시장으로 전보됐다. 농축산식품국장에는 박균조 강진부군수가, 해양수산국장에는 최종선 F1대회조직위원회 본부장이 임명됐다.

준국장인 정책기획관에는 서은수 식품유통과장이 전보됐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오광록 건설방재국장 후임에는 지방고시 2기 출신인 위광환 도로교통과장이, 3급으로 격상한 동부지역본부장에는 천제영 환경정책담당관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장헌범 창조과학과장과 문동식 정책기획관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고 보건환경연구원장에는 양수인 연구지원담당관이 자체 승진했다.

시군 부단체장 전보는 서기관 3년 이상 경력자로 도정기여도 등을 반영, 임명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정근택 해남부군수가 영광부군수, 임채영 기업도시과장이 보성부군수, 양재승 도립도서관장이 해남부군수로 전보되는 등 8명의 부단체장이 자리를 바꾸거나 신규로 발령됐다.

박내영 도체육회사무처장, 이호경 여수부시장 등 4급 이상 공직자 9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이낙연 지사와 함께 행정·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국장 등 5인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수가 공감하는 상식의 선에서 인사를 했다"며 "연공서열, 자질과 능력 고려, 농업직위에 일반직 순환배치, 보직경로 준수 등의 원칙에 따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정된 우기종 정무부지사는 8월 1일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민번호 수집 안돼요"

광주시 서구청 직원 20여명은 29일 오전 치평동 롯데마트 앞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DJ 다큐 나왔다

## 박봉남 감독 제작…8월 28일~9월 1일 광주국제영화제서 상영

올해 서거 5주기(8월18일)를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다.

〈관련기사 16면〉

(사)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28일~9월1일까지 롯데시네마 충장관에서 열리는 2014 광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김대중 (Mr sunshine)'이 처음으로 상영된다고 29일 밝혔다.

부안 출신인 박봉남 감독이 제작한 '김대중'은 DJ의 인생을 한국 현대사와 함께 영상화한 작품으로 인간 김대중의 삶과 사랑도 다큐에 담았다. 작품은 1967년 목포 총선 유세 현장을 시작으로 DJ의 삶과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박 감독은 DJ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09년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며 그해 여름 DJ의 갑작스런 서거로 촬영을 중단했다. 이후 김대중평화센터에서 공식허가를 받고 재촬영을 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90분 분량으로 상영되며 앞으로 교육 교재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버전으로도 편집할 예정이다.

박 감독은 2009년 KBS '인간의 땅' 5부작으로 한국PD대상 다큐 부문 작품상과 올해의 PD상을 수상했다. 현재 독립영화인들과 함께 '416 기록단'을 구성,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알바'로 등록금 벌려면 1024시간 일해야

## 알바몬, 업·직종 시급 산출

대학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벌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1024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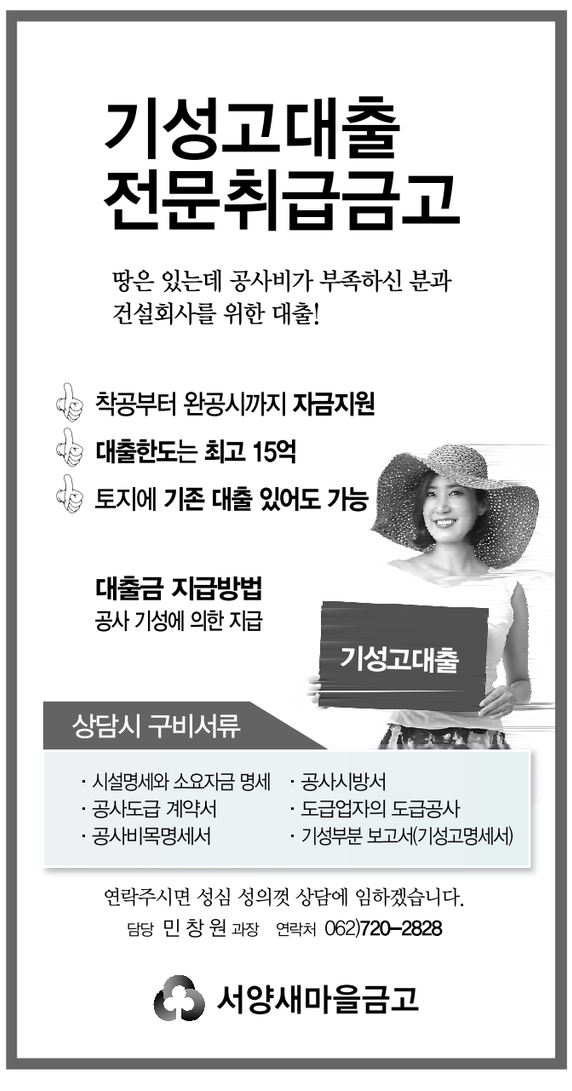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은 업·직종별 평균 시급을 기준으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아르바이트로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산출했다.

평균 시급은 알바몬이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급여통계 애플리케이션 '알바비책'이 제공했다.

교과부 통계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 액수는 660만9000원이다. 국립대는 약 403만원, 사립대는 약 734만원에 달한다.

이들 대학의 등록금을 아르바이트에 의존해서 벌기로 한다면 대학생들은 평균 1024시간은 일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르바이트로 번 급여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이다.

특히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던 도서·DVD대여점(5342원)과 편의점(5344원)의 경우 1237시간을 꼬박 일해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의 경우 755시간, 사립대는 1374시간이 소요됐다.

한편 7월 현재 가장 시급이 높은 상위 직종으로는 피팅모델이 1만5489원, 바(bar)가 1만4134원으로 나타났다. 내레이터모델·판촉도우미는 1만878원이었다.

/연합뉴스